

## 백년 옛길

### 차오링 옛길(草嶺古道)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차오링 옛길은 총거리 8.5Km의 산길로 신베이시(新北市) 공랴오구(貢寮區) 웬왕킹(遠望坑) 및 이란현(宜蘭縣) 터우청진(頭城鎮) 따리(大里) 사이에 위치합니다. 초기에는 선주민들이 타이베이와이란(宜蘭)을 왕복하는 주요 도로로 이용되었고, 현재 까지 청나라 시기에 남겨진 딴란 옛길(淡蘭古道)의 유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길을 걸으며 녹색 활엽수림과 아열대우림의 특색 식물인 나무고사리(筆筒樹)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옛길을 따라 걷다보면 띠에쓰마차오(跌死馬橋) 시엔지엔(仙跡岩)과 국가3급고적으로 지정된 「송천만 엔모제 雄鎮蠻煙摩碣」「후쓰뻬이-虎字碑」등 인문 유적이 있으며 또한 야커우(埡口) 전망대에서는 가을 계절풍에 하얗게 흔들리는 억새꽃을 볼 수 있는데 산등성이를 따라 파도와 같이 너울거리는 아름다운 풍경은 실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차오링 옛길은 풍부한 사적과 인문생태를 품고 있어 한결음 한결음 내딛는 하이킹 여정중 이 길을 개척했을 옛사람의 노고를 떠올리게함과 더불어 이 백여년간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 소중한 옛길의 정감을 더욱 깊게 합니다.



## 연중 축제

### 차오링 옛길 억새 축제: 옛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 억새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세요

매년 11월 동북 계절풍이 불어오면 옛길에는 하얀 억새꽃 바다가 온산 가득 펼쳐집니다. 동북각 및 이란 풍경관리처의 창의적 기획을 통해 매해 수만 명의 여행객이 차오링 옛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걸었던 옛길을 따라 백년의 시간을 더불어 온 아름다운 가을 억새, 여유로운 인문 풍경을 즐기며 지성과 인문 그리고 감성과 레저가 함께 어우러진 가을날의 향연을 즐겨 보아요.

**東北角暨宜蘭海岸國家風景區管理處**  
Northeast and Yilan Coast National Scenic Area Administration

**교통부관광국 동북각및이란 해안국가풍경구관리처**  
전화 : 02-2499-1210 팩스 : 02-2499-1170  
주소 : 타이베이현 228공랴오향 푸롱촌 성룡가 36호  
Website : [www.necoast-nsa.gov.tw](http://www.necoast-nsa.gov.tw)  
Email : su01@necoast-nsa.gov.tw  
무료상담전화 : 0800-091-115  
소비자보호 핫라인 : 1950  
여행안내 상담전화 : 0800-011-765

## 도움말

1. 웬왕킹친쉐이공원(遠望坑親水公園) 피크닉 구역 및 후판수어(護管所)에는 공공화장실이 있습니다.
2. 옛길에는 상점이 없으며, 후판수어(護管所) 앞에 음료수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도시락 또는 기타 음식물을 공랴오(貢寮) 또는 푸롱(福隆)에서 미리 준비하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3. 야커우(埡口)와 후쓰뻬이(虎字碑) 부근은 가을과 겨울철에 바람이 세게 불어 오므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따리(大里) 기차역은 구간열차만 정차하여 열차편이 비교적 적으므로 열차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웬왕킹친쉐이공원(遠望坑親水公園) 구내에는 두 곳의 소형 주차장이 있으며 대형차는 따리(大里) 여행자안내센터 및 따리텐꽁먀오(大里天公廟) 주차장내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6. 옛길 전 구간에는 가로등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후 3시 이후에는 진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야커우(埡口) 전망대에서는 타오위엔구(桃源谷) 산책길 차오링선(草嶺線)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하이킹 시간은 약 4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이킹 중 상점이 없으므로 음료수와 음식물을 미리 준비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여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 숲과 차오링

### 옛길을 만나다

하늘 그리고 바다의 끝자락과 가장 가까운 동북각,

원초의 세계로 들어서는 하이킹을 떠나 보세요.

하얀 억새꽃과 녹음진 수풀을 헤치며

백년을 지나온 산과 바다의 시간을 넘어 차오링

옛길을 걷다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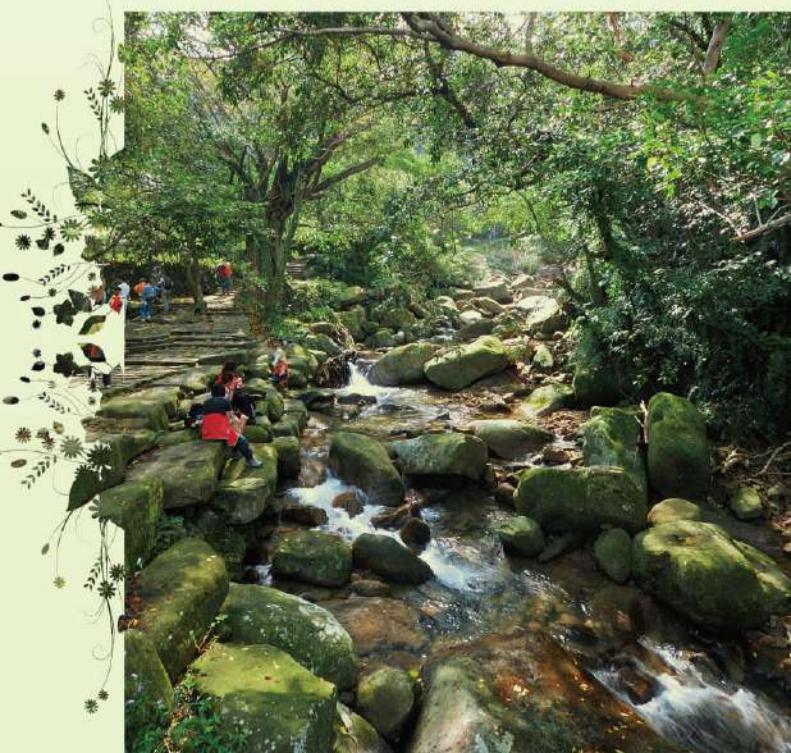
인문과 푸른 자연으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 교통안내

**기차 이용시 :** 대만철도 북회구선 이란(宜蘭), 화롄(花蓮), 타이동(台東) 방향 기차를 탑승하여 공랴오(貢寮), 푸롱(福隆) 또는 따리(大里) 역에서 하차

**버스 이용시 :** 괴광커원(國光客運-국광객운) : 타이베이→뤄동(羅東) 선 탑승 후 푸롱(福隆) 또는 따리(大里) 역 하차 지룽커원(基隆客運-기륭객운) : 허메이(和美)→공랴오(貢寮) (차오링 옛길草嶺古道) → 푸롱(福隆), 웬왕킹커우(遠望坑口) 하차

**자가 운전시 :** 중산 고속도로 (中山高)를 타고 난난(暖暖), 퀘이팡(瑞芳) 입체교차로에서 내려 62호 (완톄이 쾨속도로-萬瑞快速道路) → 타이 2 선(台2線)으로 운행. 차량은 웬왕킹커우(遠望坑口) 주차장 또는 따리(大里) 여행자안내센터 주차장에 주차 가능



# 하이킹 코스와 소요 시간

차오링 옛길(草嶺古道)은 총거리 8.5Km, 도보로 편도 약3-4시간이 소요됩니다. 여행객은 웬왕坑(遠望坑)에서 출발하여 따리(大里) 방향으로 전진(북→남)하거나, 또는 따리(大里)에서 출발하여 웬왕坑(遠望坑) 방향(남→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푸룡(福隆) 후쓰산(虎子山)을 거쳐 웬왕坑(遠望坑)에 이른 후 따리(大里)로 향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여행객 여러분의 일정에 맞추어 코스를 선택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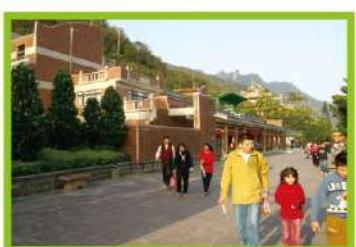


## 제도안내



### 10. 따리 텐꽁마오

차오링 청원궁(草嶺慶雲宮)이라고도 불리우며 뒷편은 산, 앞쪽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 매우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이 절은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는데 매년 음력 정월초 9일에 열리는 축하 제전에는 멀리서 많은 신도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 성황을 이룹니다.



### 11. 따리 여행자안내센터

인문사적 전시, 멀티미디어 상영실 및 해설 서비스를 갖추었습니다. 광장입구에는 「후쓰베이虎字碑」 탁본 구역을 설치하여 여행자 여러분께 탁본 체험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9. 후관수어

1970년 임무국이 산림관리를 위해 설치한 곳으로 1989년 동북각 및 이란 풍경관리처에서 점점 늘어나는 여행객의 편의 서비스를 위해 뒤동 임구관리처를 경유, 임무국의 인준을 받아 개축 재건하고 공공화장실 등 시설을 증설하였습니다.

### 5. 타오위엔구

옛 이름은 쿤녀우짜이산(綑牛仔山)으로 3Km에 달하는 완만한 초록빛 산등성이에서 이름지어졌는데 드넓은 초원과 탁트인 시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태평양, 북쪽으로는 멀리 통동자(龍洞岬)를 조망할 수 있고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행객에게 하이킹 코스로 매우 사랑받는 곳입니다.

### 4. 후쓰베이

차오링 옛길(草嶺古道)의 3급 고적으로 당시 타이완진(臺灣鎮)총병(總兵) 이었던 류밍령(劉明燈)이 북쪽 순찰을 하며 야쿠우(埢口)를 지날 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자 역경(易經)의 의미를 담아 「호 虎」자를 휘갈겨 써서 강풍을 진압했다고 전해집니다.

### 3. 「송전만엔모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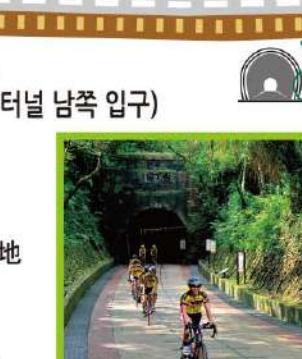
차오링 옛길(草嶺古道)의 3급 고적으로 청나라 동치(同治)6년 타이완진(臺灣鎮)총병(總兵) 이었던 류밍령(劉明燈)이 북쪽 순찰을 하며 차오링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큰 안개를 만나자 「송전만엔 雄鎮蠻煙」네 글자를 써서 안개를 물리쳤다고 전해집니다.

### 2. 피에쓰마차오

언전설에 의하면 옛 상인들이 말을 타고 지통(基隆)을 출발해 이 곳까지 이르렀는데 좁은 길을 다투던 말들이 피로에 지쳐 이 나무다리에 쓰러져 죽은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 1. 웬왕坑친쉐이공원

사면이 산으로 둘러쌓인 논계단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잔잔히 흐르고 부드러운 초록 용단과도 같은 풀밭이 펼쳐진 차오링 옛길을 걷다 보면 모습을 드러내는 이 공원에는 정자와 산책길, 아치형 다리, 생태연못 등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전원의 풍경을 느긋하게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 12. 구 차오링 자전거도로

1986년 철도 노선의 변경으로 폐쇄되었다가 2008년 재구획하여 타이베이현 푸룡(福隆)에서 이란현 스청(宜蘭縣石城)에 이르는 총거리 2,167m의 자전거도로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는 타이완에서 가장 긴 자전거도로로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동북각 관광지 가운데서도 가장 환영받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